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우상숭배의 핵심은 두려움**

성경: 사무엘상 1장 20-28절

Tag: **율법주의와 우상타파** > *destroy nomism & idol*

20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1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22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3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 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24 젖을 떤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5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6 한나가 이르되 배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배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삼상1:20-28)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인의 신앙생활의 핵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신앙생활 중에 우상타파에 있다. 모든 우상을 배격하고 깨 부수며,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곁을 두지 말아야 한다.

곁을 둔다는 말은 스스로 그것이 자기와 가까이 있을 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곁’이라는 낱말의 뜻이 ‘겨드랑이’에서 온 말이다. 그러므로 곁을 둔다는 말은 자기의 겨드랑이에 끼여 둔다는 뜻이다.

애장품처럼 소중한 여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물건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거나,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나, 그렇다고 하길래 버릴 수 없다거나, 혹시라도 내가 버리면 나에게 운이 따르지 않을지 모르니 기왕 예쁘기도 하고 하니, 악세사리처럼 가지고나 있지 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것을 소장한 채 기도를 드린다든지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스러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점에 대해서 단호하시다.

또는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사람과 연관된 행사, 어떤 특정한 사건과 연관된 행사에서의 제례행위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복적이다. 그런데 이런 기복적인 행위는 매우 어리석은 가능성이 크다. 카페에 있으면 종종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경우를 보게 된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는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며 떼를 쓴다. 정말 하늘이라도 당장에 무너져 내릴 듯이 통곡하면서 만약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 이곳에서 죽겠다는 듯이 발광한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선호하는 색깔이나, 모양이나, 어떤 행위이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맞추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말로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다. 나는 뒤에서 한 대 쥐어박고 싶은 마음이 떼쓰는 아이의

고함소리와 같은 볼륨으로 일어나지만, 참을 수 밖에 없다.

사람의 기복행위가 이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다. 자기에게 결코 도움이나 이득이나 만족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는 행위가 기복행위이다. 하나님은 절대 들어주지 않으신다. 다만 우연히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얻었을 때는 이미 그는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기복행위 자체를 일종의 액땀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빌었으니 안심하고 심지어 자기가 무엇을 빌었는지조차도 까먹는다.

기복행위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의 기복행위에 대해서 들었다면, 왠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그래서 하기 싫지만 그 불안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따라한다. 어리석은 기복행위이다. 한번 따라 하다 보면 재미가 붙기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의식도 생기고, 다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따 당하는 것 같고, 귀신에게 찍히는 것 같다. 귀신이라도 달라 붙으면 왠지 기분 나쁘니까 그냥 액땀 하는 셈 치고 따라 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복행위 그 자체를 혐오한다. 왜냐면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고, 나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나의 수호천사를 명하여 나를 지키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기복행위를 하면 그것은 온전히 나의 수치가 되므로 결코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였나, 어느날 어머니가 분주하셨다. 이것저것 장만하시더니 결국 뒤지 위에 공들인 음식들을 가득 채우셨다. 나는 웬일 아다냐 싶어 어머니 하는 부산스러움을 구경하고 있었더랬는데, 어머니는 자신이 이만하면 됐다 싶으셨는지, 나더러 오라 하시더니 나의 옷 매무새를 만져 주시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 주셨다. 그러더니 나더러 뒤주를 향하여 절을 하랍시다.

나는 황당하여 아니 왜요? 물었다. 아니 그냥 절 하렴. 오늘 무슨 날이어요? 오늘이 니 생일이다. 그런데 왜 여기에 절을 합니까? 니 생일이니 니가 절을 해야지. 내 생일인데 왜 내가 나에게 절을 해요? 내가 죽었나요? 그러자 어머니는 머쓱 하셨는지, 하기 싫으면 관두렴. 하셨다.

지금 생각해 보니 아마 누군가 아들 생일상 차려놓고 절을 하면 좋다는 말을 들으셨나보다. 그래 나를 위해서 그 애를 쓰셨는데, 나는 불효자라 절을 하는 포퍼먼쓰를 보여드리지 못했구나...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 때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고백할 줄은 몰랐지만, 뭔가 내 속에서 그러면 안된다는 느낌이 강했다.

나는 어려서도 교회에 다니면 평안했고, 교회를 몇주간 빠지면 꿈자리가 사나웠던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2학년때 처음 동네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천로역정을 본 적이 있다.

며칠전에 처가 식구들이 모인다 하여 오랜만에 갔다. 잔치한다 해서 이것저것 후원하며 참석하게 되었는데, 둘째 처남 하시는 말씀이 홀로 외로이 지내다 돌아가신 고모님이 생각나서 제사 드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아무도 이분 기억도 하지 못할 터인데,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세상 많이 변했네. 우리라도 기억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신다.

나는 자식 없는 고모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 가물가물해서 아내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그런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키가 훗칠 하시고, 이국적으로 예

쁜 분이셨는데, 자기를 끄찍이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더라. 어느 부잣집으로 시집 가셨는데, 자녀를 보지 못하셨고, 남편도 일찍 죽었는데, 가산을 정리하고 절에 들어가셨단다. 어느날 꿈속에 고모님이 자그만 애지중지하는 불상을 들고 다리를 건너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도 하는데, 자기는 억울해서 꼭 다음생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다리를 건너 시더라. 다리를 건너가다 순간 실수로 불상을 떨어뜨렸는데, 불상이 딱 깨지니까 너무 충격을 먹고, 나는 이 속에 뭐가 있는 줄 알았다. 대성통곡 하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깨진 불상을 보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우셨다. 아이고!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섬기며 불공을 드리면, 내가 인간으로 환생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속이 빈 헛것이였네!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네! 억울하고 억울하구나, 하시며 통곡 하시는 중에 꿈을 깬다 한다. 꿈을 깨고 나니 그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단다. (이건 태몽도 아니고 부몽이라 해야 하나?)

이 고모님은 삶이 너무 억울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새벽마다 불공드리기 위해서 목욕재계 하셨는데, 그 추운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찬물로 목욕하신 분이시다. 이상승배가 이렇다.

보니, 처가 집안에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가 셋, 아이 키우는 딸이 둘인데 모두 아이들 키우는데 올인하고 있단다. 큰집 올케는 남편이 아픈 관계로 하루 온종일 남편을 간호하는데, 간호사 출신답게 어찌나 야무지게 간호하는지 온 식구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 젖을 떼는 동안만 자기가 양육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단단히 약조하고, 그 전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 하나님께 걱정하고 기도 하면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얻은 아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어 불렀다.

20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이와 정들면 자기 가슴 미어지니 맘 단단히 먹고 오직 하나, 내가 젖을 먹여야 아이가 커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아이가 젖을 땔때까지만 기다리쎄. 내가 이 아이를 더 붙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까봐 그러니 젖 땔때까지만 기다려 주쎄잉.

한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이를 양육하시라 내어 드렸다.

한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양육을 믿었다.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며 간직했던 믿음이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한나의 마음이 요게벳의 마음과 같았으리라.
모든 부모가 요게벳과 한나와 같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고백을 간직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잘 키워야 한다. 내 새끼가 아니다.
내 분신이 아니다. 내 맘에 들도록 키우는게 아니다. 하나님 맘에 들게 키워야
한다. 이게 진정한 어미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한다.

모든 식구에게 이와 같아야 한다.
내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어 내가 섬길 남편이다.
내 아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어 내가 부양해야 할 아내다.
내 부모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들이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의 애착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양육과 이끄심과 주인 되심이 이루어진다.

내가 돈이 많아야 아이를 키우는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으니, 양육할 수 있는 재산도 주시고, 재능도 주신다.
누구를 위해 희생할 것인가? 자녀를 위한 희생이 곧 하나님께 드릴 희생의 제
물이 된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 많은 세월을 저놈 키우느라 헛고생 했나? 하지마라.

하나님, 나로서는 이렇게 밖에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것을 우상숭배처럼, 내 훗날의 보험처럼, 늙어서 외롭지 않고, 나를 부양할 재능이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기복적인가?

적어도 기독교인은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 항상 이점을 잊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자. 하나님이 그를 키워 주시리라. 아멘.

아무리 식구라도 곁을 두는 것 만으로는 참된 행복이라 할 수 없다.

철 없을 때는 네 얼굴 보면서 평생 살 것 같지만, 삶이란 그렇게 녹록치 만은 않다. 한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브닌나 강패를 만나고 보니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남편 엘가나는 적극적인 한나 빠였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둘은 천생연분이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어찌 어찌 하다 보니, 둘째 부인까지 얻게 되었지만, 엘가나의 진정한 아내는 한나였다.

그는 매년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나누는데,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곱절을 주었다. 마치 장자의 권한처럼, 너는 이 집안의 장자라는 뜻이다. 자기 댄에는 사랑의 표시였으나, 한나 입장에서는 혼자서 두 사람 몫을 먹어야 하니 여간 민망하다.

그것을 곁에서 뵈는 브닌나도 기가 찰 노릇이다. 애새끼들 줄줄이 있는데 애도 없는 한나는 고기를 먹지 못해 남겨두고 있는데, 자기 애들은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이다. 제삿날이 싸움날이다.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곧 하나님이다. 한나의 마음에 불을 질러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신 것이다. 왜냐면 거룩한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미 마귀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노략 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한나의 간절한 상황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명분을 만들었고, 한나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하게 된 것이다.

경건한 자의 곤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 경건한 한나에게는 곤경조차 복의 통로가 된 셈이다. 경건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곤경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돌파하기 바랍니다. 아멘.